작년 85곳 중 83곳 성공…청년창업 지원사업 ‘대박’

광주시 2010년 전국 첫 도입
235개 기업 도움 받아
생존율 33%서 98%로
기업가 키우고 일자리 창출

#. 예비 청년 창업가 김모씨는 지난 2011년 ‘셀프 지폐소독기’를 개발·창업하기로 결심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지폐의 위생 문제가 여론화되던 시기였다.

김씨는 자외선 살균기능에다 천연 허브향까지 첨가된 소형 셀프 지폐소독기를 만든다면 ‘대박’이 날 것으로 자신했지만, 초기 창업비용이 문제였다. 김씨는 고민 끝에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청년 창조기업지원 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창업 종자돈인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창업 다음해인 2012년에만 지원금의 10배가 넘는 1억4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종업원을 3명이나 둔 어엿한 사장님이 됐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창조기업지원’ 사업이 청년기업가 육성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도 견인하고 있다. 시에서 지원한 청년 기업의 생존율도 80%를 넘어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 첫 해인 지난 2010년 9월부터 청년 창조기업 지원사업으로 2010년 33개, 2011년 37개, 2012년 80개, 2013년 85개 등 235개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지원 예산은 1개 기업 당 1000만원~2000만원씩 총 55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지원기업 중 2010년 첫해에는 생존(성공)율이 33%(11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70%(26개), 2012년 89%(71개), 2013년 98%(83개) 등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급상승해 평균 생존율이 81%를 기록중이다.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일반 R&D사업 등의 생존율이 50%미만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235개 청년 창조기업 중 148개 기업이 정식사업자로 등록했으며 고용인원은 156명,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도 54건에 이른다. 이들 중 10개 업체는 타기관이 지원한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기준으로 연매출 1억원 이상을 기록한 청년창조기업도 5곳이며, 5000만원~1억원 기업도 9곳이나 된다.

이러한 광주시의 청년일자리 지원 덕분에 광주의 청년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타 도시의 청년 취업자 수는 대부분 감소한 데 비해 광주는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2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세계를 대표하는 경제 선진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광주지역 청년창업자들의 도전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 12만명 모집

선발 일정 확정…연말까지 뽑아 기본·직무교육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개최와 도시 홍보의 주역이 될 자원봉사자 선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U대회 경기가 열리는 기간 숙소와 선수촌, 경기장 등 현장에서 뛸 자원봉사자 12만명을 모집한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현재 목표의 43.8%인 5만2579명을 모집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 7만명을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물론 12개 전남지역 시·군 에서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전국 16개 시·도에도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U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 1단계로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모든 참여자는 자원봉사자의 기본자세와 U대회 이해 및 소개 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2단계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으로 경기장별 주요임무와 현장 위기관리 대응능력, 국제 매너와 친절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이어 3단계는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6만명을 선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4단계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현장 투입인력의 120%인 3만6000명을 선발해 조직위원회에 배치, 현장적응 선수학습을 받게 된다. 마지막 5단계는 내년 4월에 현장에 투입할 3만명을 최종 선발, 개별적으로 임무를 부여해 실제와 똑같은 실습을 하게 된다. 본부호텔과 선수촌, 68개 경기장 및 훈련장에 배치해 매뉴얼을 익히고 실전대비 적응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기시상 도우미, 의료분야 전문가, 소방 인력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도 강화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위기의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쉼터 등 25개 사업 추진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탈선의 우려가 있는 ‘위기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광주시는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강화, 청소년 쉼터 운영 등 2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확대해 긴급구조,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보호소 숙식제공, 관련 시설과의 연계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1388 신고전화와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5개 구별로 운영하고 가정법원 등과 연계해 보호관찰청소년 및 소년원 출원생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 연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광주시는 가출 및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정상 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올 하반기에 남자 중장기 쉼터 1곳을 추가로 신설한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지원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대안학교 3곳과 징검다리 배움터 4곳, 대안교육프로그램 등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북구 중흥 1동 주민센터 개소 광주시 북구 중흥1동 주민센터가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의장, 송광운 북구청장이 참석,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북구 관광안내지도 7000부 제작 배포

광주시 북구는 24일 관광객들이 지역 내 관광명소와 탐방코스 등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사진〉 7000부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지도엔 무등산·국립 5·18 민주묘지·충효동 왕버들·풍암정 등 ‘북구 8경’을 비롯한 충장사·경렬사·김용학 가옥·청풍 쉼터 등 ‘가 볼만한 곳’, 테마별 관광코스·체험관광·맛집·숙박업소 등 북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관광정보가 들어 있다.

이번 관광안내지도의 특징은 북구 전체 지도에 주요 관광지도를 표시, 관광객들이 코스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포개어 접는 방식으로 돼 있어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구는 이날부터 구청 각 사무실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관광안내소·관광협회·맛집 등에 배치, 홍보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아파트 40곳 모집

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수도, 전기, 가스를 절약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녹색생활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광주지역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간 자발적인 경쟁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운동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등급별 인증방식으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5차년도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참가 아파트는 오는 3월14일까지 골드, 실버, 일반등급으로 나눠 40여개를 모집한다. 선정된 아파트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실천사업을 추진한 후 연말에 온실가스 저감 분야와 녹색생활 실천 분야 등 2개 분야 1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아파트로 선정되면 인센티브와 등급별 인증패를 받게 된다.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가정과 상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주거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쟁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총 177개의 아파트가 참여했고, 이 중 55곳이 우수아파트로 선정돼 녹색생활 실천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65일간 9만5000명 즐겼다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 폐장

겨울철 여가 명소로 사랑받은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이 지난 23일 폐장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1일 문을 연 야외스케이트장이 하루 평균 1460명, 65일간 총 9만5000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55일간 운영키로 했으나 소치 동계올림픽 특수효과와 빙상인구 저변 확대, 그리고 시민들의 희망에 따라 10일간 연장 운영했다.

야외스케이트장은 청소년들이 운천저수지에서 얼음지치기를 하다 사고를 당한 소식을 접한 강운태 시장이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방안을 지시해 설치됐다.

야외스케이트장은 오전에는 주로 초·중등 학생이 이용하고,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는 대학생과 젊은 층의 새로운 데이트 장소로 이용되는가 하면 주말에는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주를 이뤘다.

그동안 야외스케이트장에서는 개장식 축하쇼, 성탄절 행사, 신년맞이·설맞이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또 전문 강사가 배치돼 지도해주면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공공도서관 회원증 하나로 이용

3월부터 통합도서서비스

오는 3월부터는 광주지역 모든 공공도서관을 회원증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립도서관(관장 조정희)은 통합회원증으로 광주지역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대출과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합도서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시립, 구립 등 12곳에서 운영을 시작해 올해 교육청 도서관과 신설 구립도서관 등 5곳을 추가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통합도서서비스를 통해 광주지역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목록 검색, 도서대출, 대출예약, 자료실이용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도서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대구·인천시, 경기도, 전남·북도, 제주도 등 타 시·도의 공공도서관 206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도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회원도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통합도서회원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